

국토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민관 합동검증 실시

앞으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.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기관 공무원, 공인회계사,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설협회 관계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검증키로 했다.

검증 대상은 국토부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업종별 협회의 주요 간부들이 소속된 업체 50곳과 무작위

로 선택된 업체 100곳 등 150곳이다.

특히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업체의 평가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검증하는 등 협회 간 교차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.

국토부 관계자는 “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민·관이 합동으로 검증하면 평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하위윤기자